

**2021년 11월 17일(수) 조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.16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11.16(화)	담당부서	기계융합산업표준과
담당과장	이병휘 과장(043-870-5370)	담당자	이경희 팀장(043-870-5379)

##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, 표준화로 앞당긴다

- 자율차 데이터·레벨 표준안 개발, 안전성 가상시험방법 국제표준화 추진 -
- 「2021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」 개최(11.16) -

-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상훈)은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, 차량과 인프라 간 교환되는 위치, 속도 등 데이터와 자율주행 단계를 분류·정의하는 레벨에 대한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(KS)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.
  - 자율주행 성능을 가상공간에서 시험·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.
- 국표원은 16일 전남 여수(히든베이호텔)에서 전문가 100여 명이 온·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「자율차 표준화 포럼\* 및 국제 컨퍼런스」를 개최하고 표준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.

\* '18.11월 자율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,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출범

### < 2021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 >


- 일시/장소 : '21.11.16.(화) 13:30~17:00 / 히든베이호텔 2층 그랜드볼룸(전남 여수)
- 참석자 : 국가기술표준원, 포럼위원장(허건수 한양대 교수), 분과위원장 등 50명 참석 (+50여명 비대면 온라인 참여)
- 주요내용 : 자율차 표준화 성과 및 향후계획, 국내·외 자율주행 가상공간 시험(시뮬레이션) 기술 및 표준화 방향 논의

- 자율차 데이터 표준안은 차량과 사물통신(V2X)을 통해 주고받는 위치(위도·경도·고도 등), 속도 등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, 이들 기본 데이터를 조합하여 차량추돌방지, 위험구간알림 등의 차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이다.
  - 이 표준은 서울시, 세종시, 대구시, 경기도 등 자율차 실증단지에서 실증을 진행중이며, 향후 전국 도로의 자율주행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자율차 레벨은 그동안 주로 미국 자동차공학회(SAE) 표준을 주로 인용하여 왔으나, 지난 9월 레벨 표준이 국제표준(ISO)으로 발간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개발했다.
  - 레벨 표준안은 자율주행을 차량의 운전자동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6단계로 분류\*하여 정의하고 있다.
    - \* 레벨0(운전자동화 없음), 레벨1(운전자보조), 레벨2(부분 운전자동화), 레벨3(조건부 운전자동화), 레벨4(고도 운전자동화), 레벨5(완전 운전자동화)
  - 이 표준은 산업계에 자율차 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, 자율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표원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안 3종을 내년 상반기내에 국가표준(KS)으로 제정하고, ▲교통·인프라 분야 데이터, ▲카메라·라이다와 같은 주요 부품, ▲차량사물통신(V2X) 보안 등으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- 이뿐 아니라 국표원은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가상 공간 시험(시뮬레이션)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, '23년까지 자율주행 가상시험 평가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.

- 이를 위해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는 독일, 미국, 한국 전문가가 자율주행 안전성을 가상공간 시험으로 검증하는 기술과 평가 방법을 발표했다.
- 독일은 자율차 가상공간 시험 검증시 요구사항, 미국은 자율차 평가에 대한 안전 원칙,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윈\* 기반의 가상공간 시험 등을 소개했다.

\* 가상공간에 현실공간 사물의 쌍둥이(Twin) 구현 →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분석·예측

-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“자율주행 데이터, 레벨 등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는 핵심 표준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”고 평가하고,
- “우리 기업들이 자율차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포럼과 산학연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이경희 팀장(☎ 043-870-53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

## □ 행사개요

- 행사명 : 2021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
  - 일시/장소 : '21.11.16.(화) 13:30~17:00 / 히든베이호텔 2층 그랜드볼룸(전남 여수)
  - 주최/주관 : 국가기술표준원/한국표준협회
  - 참석자 : 국가기술표준원장, 포럼 운영위원장(허건수 한양대 교수), 분과위원장 등 전문가 50명 (+50여명 온라인 참여)
- \* 유튜브 중계 (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or 표준협회 로 검색)

## □ 세부 일정

시간	내용	비고
<b>제1부: 포럼 총회</b>		
13:30~13:40 ('10)	▶ 개회사 ▶ 환영사	포럼 운영위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
13:40~13:55 ('15)	▶ 포럼경과 및 표준화성과 발표	한국표준협회
13:55~14:05 ('10)	▶ 표준화 감사패 시상 및 전체 사진촬영	국가기술표준원장, 내빈 등
14:05~14:25 ('20)	▶ [초청발제]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로 새로운 공간 창출과 기술 고도화 방안	스프링클라우드 (송영기 대표)
14:25~15:00 ('35)	▶ [패널토의] 자율차 국제·국가표준개발 이슈 및 전략	포럼 운영·분과위원장
<b>제2부: 국제 컨퍼런스</b>		
15:10~15:40 ('30)	▶ 독일 자율주행 가상검증 요건	독일 TUV SUD (Christoph MIETHANER)
15:40~16:10 ('30)	▶ 미국 자율주행 안전성 시험-UL 4600	미국 UL (Deborah Prince)
16:10~16:35 ('25)	▶ 디지털트윈으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테스트	모라이 (정지원 대표)
16:35~17:00 ('25)	▶ 자율주행 개발과 검증을 위한 가상환경 구축	AVL Korea (손민혁 총괄부서장)